

정은경 “통제박존재…안심할상황아냐”

인구 밀집된 수도권서 하루 100여명 확진자 발생 월요일통계, 검사량 적어 확진자 수 적게 나타나 방역당국,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목표 “추석·겨울 다가와…수도권 빠르게 억제해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산발감염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망 통제의 범위 바깥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역사회 접촉 감염과 N차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8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29일 연속 세자릿수 규모의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3일엔 99명, 14일엔 98명으로 1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12일 86명, 13일 60명, 14일 81명으로 3일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1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은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21명 더 늘었다.

통상 월요일 통계에는 검사량이 적어 확진자 수가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일부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9월1일 0시부터 9월14일 0시까지 신고된 2338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549명으로 전체의 23.5%에 해당한다.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이 확진자를 감염시킨 감염자를 찾지 못해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격리조치가 안된 감염자가 무증상 감염 등으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할 경우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경로 미파악 비율을 5%로 잡고 있는데, 현재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상태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미달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전파의 위험이 떨어진다.

방역당국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항체가 조사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시급한 과제인 수도권의 유행 규모를 더 빠르게 억제해야 한다”며 “다가올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 또 동절기의 인플루엔자 유행예방과 코로나 동시감염의 차단이라는 커다란 숙제이자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지난 9개월간의 유행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코로나 시대에 나와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의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 환경 피하고 거리두기 등 건강관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며 “각 사업장·업종별로는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식과 방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과 중앙정부, 지자체는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징역 10년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치료 감호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15분 전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인생이 복잡하게 얽혔고, B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제 때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역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전남 호우피해 조롱’ 악성글 게시자 20·40대 검거

광주와 전남지역 호우피해를 ‘흥어’ 등으로 조롱한 20대와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폭우 피해자에 대해 악성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2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전남 담양에서 폭우 피해로 숨진 8세 어린이에 대해 악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대 남성 B씨는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의 한 추모관에 대해 ‘전라도 빼해장국집 맛집’으로 표현하는 등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호우피해가 발생하자 ‘흥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침수피해 사진 등을 인용하며 악성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엄벌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숙박업소 동반 투숙 선배 지갑서 돈 훔친 2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숙박업소에 동반 투숙한 선배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46)씨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묵던 중, B씨가 샤워를 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왜 컴퓨터 씨’ 고교생 폭행 편의점 업주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손님에 따른 혐의(폭행)로 편의점 업주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55분께 광주 서구 송촌동 한 편의점에서 고등학교생 B(16)군의 먹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스포츠도트 복권 구매자를 위해 마련한 경기 일정 검색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격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코로나 확진자 3일째 0명…전국 평균 발생률 하위

누적 확진자 166명 중 96명 치료 중…인구 10만명당 발생률 4번째 적어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 누적인원과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전국 도 단위 중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3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 확진자는 해외유입 33명을 포함해 총 166명을 기록, 전국 총 확진자(2만2285명)의 0.7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 53명, 세종 70명, 전북 100명, 울산 141명, 충북 147명에 이어 6번째로 적은 규모

다. 제주를 제외한 도 단위에선 3번째로 적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7112명이며, 이어 서울 4711명, 경기 3933명, 경북 1488명, 인천 834명 등이다.

전남지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90명으로 전북 5.50명과 제주 7.90명, 경남 8.00명에 이어 4번째로 적다. 전국 평균은 48.40명이다.

전남지역 확진자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이날 현재 96명이며, 치료를 마친 격리 해제자는 70

명으로 42.2%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는 1명도 없어 세종, 전북, 경남, 제주와 함께 치명률 0%를 기록했다.

현재 음압병상을 갖춘 전문병원에 10명의 고령환자가 입원해 있다.

전남지역 서울 세브란스병원 접촉자 17명을 검사한 결과 1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중이거나 검사 예정이다.

광주 말바우시장 접촉자는 3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